

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3131곳 중 764곳 24.4% 그쳐...광주 7곳 16.3%

농림부, 축사 면적별 3단계로 나눠 적법화 추진 중

무허가 축사 폐쇄와 사용종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전남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2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에

서는 3131개 무허가 축사 가운데 764곳(24.4%)만 적법화됐다. 광주는 적법화 대상 축사가 43곳으로 적기는 하지만 7곳(16.3%)만 적법화가 완료됐다.

전국적으로는 4만77개 무허가 축사 가운데 5427곳(13.5%)이 적법화돼 그나마 광주와 전남 적법화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7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45.2%), 제주(32.

7%), 전남, 경기(20.1%), 전북(17.8%), 광주 순이었다.

적법화율도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에 있는 전국 4093개 축사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전남은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수변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등 입지 제한 지역 내 무허가 축사가 304곳이 있으며, 광주는 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내년 3월 24일)는 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으로 적법화 대상 축사는 전국적으로 1만1905곳이다.

2단계 대상 축사는 2019년 3월까지, 규모가 가장 작은 3단계 대상 축사는 2024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2단계와 3단계를 합친 적법화 대상 축사는 2만8172곳이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적법화율이 더딘 지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적법화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북도민의 숲'

목포 삼학도에 문 열어

전남도와 경북도가 화합과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한 '경북도민의 숲'이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있는 목포 삼학도에서 26일 준공행사를 갖고 문을 열었다.

이날 준공행사에는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인 이재영 행정부지사와 우병운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상북도 시민단체 관계자 80여 명도 함께 했다.

경북도민의 숲은 지난 2015년 3월 당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숲 조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전남과 경북도는 2015년 5월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6번의 실무회의를 거쳐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공동존이(求同存異)'를 주제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1.5ha의 면적에 숲을 조성했다.

숲에는 경상북도의 도목(道木)인 느티나무와 도화(道花)인 백일홍 등 4천여 그루가 심어졌고, 상생의 길, 화합마당, 금오산을 축소한 동산, 경북의 상징 도조(道鳥)인 왜가리 등 조경 시설물도 설치됐다.

지난 13일 구미 동락공원에서 준공행사를 가진 '전남도민의 숲'에도 1.5ha의 면적에 전남도의 도목인 은행나무 등 3700그루가 심어졌다. 여기에 목포의 눈물 노래 기념비, 상생의 언덕, 화합의 광장, 야외무대 등이 설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동서 갈등을 앓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고, 도민의 숲이 그 역사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경북도민의 숲은 영호남이 힘을 하나로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작은 몸짓"이라며 "전남과 경북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할 일을 찾아 실현해가자"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6일 목포시 삼학도에서 열린 동서화합과 교류협력을 위한 '경북도민의 숲' 준공식에서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우병운 경북 경제부지사 등이 '영원한 우정 하나 되는 손길' 상징 조형물 앞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농업진흥지 10년간 여의도 면적 434배 감소

2007~2016년 12만6천ha 줄어...전남 14%

농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해 관리돼 온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434배에 달하는 12만6000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변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 농업진흥지역은 11% 감소했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1만9800ha였던 농업진흥지역은 지난해 말 99만3700ha로 줄어들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3만6100ha였던 농업진흥지역이 지난해 99만3700ha로 축소되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예산 등을 지원해 농지조성사업과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시행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2007~2016년 부산 75%, 울산 46%, 대구 31%, 경기

22%, 전남 14%, 경북 11.6%, 충남 11%, 충북 10%, 전북 10%, 경남 10%, 인천 3.6%, 강원 1.3%의 농업진흥지역이 각각 줄어들었다. 제주에서 2008년 농업진흥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수급안정대책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해 농업진흥지역이 큰 폭으로 해제·변경됐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농업육성사업과 생산을 촉진해야 할 농식품부가 농업의 필수생산요소인 농지면적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1ha 이상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는 농지전용의 경우 2013년 1만960ha, 2014년 1만 718ha, 2015년 1만2303ha, 2016년 1만

4145ha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기준 지역별 농지전용 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3042ha로 가장 많았고, 경남(2401ha), 경북(1654ha), 충북(1620ha), 전남(1260ha) 등 순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벨상 상금 12억7천만원

노벨재단 이사회는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각각 돌아갈 상금을 900만 크로나(약 12억7000만원)로 책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종전 800만 크로나(약 11억3000만원)보다 100만 크로나(약 1억400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노벨재단은 기금의 장기적 운용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2011년부터 1000만 크로나인 상금을 2012년 800만 크로나로 깎은 바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전남서 힐링·생태체험하세요

완도수목원 무료 개방...영암 자동차경주장 등 운영

최대 10일 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전남에서 힐링과 생태체험 등 주요 체험시설이 귀성객들을 맞이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은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되고,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카트 경기장과 오토캠핑장, 여수 해양수산과학관, 구례 섬진강어류생태관을 정상 운영한다.

완도수목원은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산림박물관을 제외한 아열대 온실, 산림교육관 등 전시원을 무료 개방한다. 가을 숲의 청량함과 사이사이 쏟아지는 햇살의 따사름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33ha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 수목원인 완도수목원은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등 조경, 식·약용 가치가 큰 77여 가지 자생 식물이 분포한 생태자원의 보고(寶庫)다. /최권일기자 cki@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카트 경기장은 길이 1600m 규모로 1~2인승 종류별로 주행할 수 있다. 탑승 대기 중에는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민속놀이와 RC카를 체험할 수 있다. 카트 이용료는 10분당 1인승 1만2000원, 2인승 1만8000원으로 추석 당일 오전 휴무를 빼고는 연휴 기간 상시 운영된다. 특히 카트경기장 주변에는 오토캠핑장과 체육공원 등 레저시설이 마련돼 있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과학관은 전남도어(道魚)인 참돔과 청색 쥐돔, 해프리고기, 여우고기 등 다양하고 맛있는 해수 관광어를 관람할 수 있다. 남해안에 서식하는 쥐치류, 별가오리, 노랑가오리, 독가시치 등 2만여 마리 물고기와 함께 3D 영상관에서는 실제 바닷속 풍경을 주제로 한 입체영상도 볼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

귀성 3일 오전·귀경 4일 오후 '가장 혼잡'

서울→광주 5시간10분 소요

올 추석 연휴기간(9월29일~10월9일) 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광주 5시간10분, 서서울→목포 5시간40분으로 예상된다. 귀경길의 경우 광주→서울 5시간40분, 목포→서서울 6시간1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추석 연휴 예상 귀성·귀경 차량량과 이동 인원, 시간대 등을 발표했다.

올 추석 귀성·귀경길 소요시간은 지난해 대비 귀성은 줄어들고, 귀경은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900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통수요조사 결과 추석 하루 전인 10월3일 오전과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후에 각각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며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이동인원은 3717만명, 1일 평균 577만명이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47만대로 예측돼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추석은 명절 최초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돼 눈길을 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복마전 아파트 분양시장' 1면서 계속

하지만 광주의 지치구들은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아파트에 부적격자가 양산되면서 모든 분양 아파트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만, 남구 건축과의 경우 2016년 5월 이후 분양 승인을 해준 4개 단지에서 예비입주자 선정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서구 건축과 역시 3건 가운데 2건의 명단만 받아봤을 뿐이다. 제대로 선정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살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청약서류 일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외지인의 아파트 당첨 제한 ▲재당첨 규제 강화 ▲예비입주자 확인 ▲전매제한 실효 파악 및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역명을 요구한 공인중개사는 "예비입주자 우선순위는 어느 건설업체에서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부적격자 통보 후 소명은 건설업체가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건설업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광주 아파트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한 아파트 분양업체 관계자는 "서류로만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과 금융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부적격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팔아넘기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관계기관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규정은 있지만 민원이 있거나 문제제기가 없어 그다지 신경쓰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아파트 전매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1년으로 정해진 아파트 전매제한이 풀리면 각 자치구에 청약 명부의변경이 빚발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효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옥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